

朴泰遠의 「洪吉童傳」研究

林 茂 出

〈目 次〉

- | | |
|------------------|------------------|
| 1. 서 론 | (2) 역사적 사건의 문제화 |
| 2. 박태원의 역사소설관 | 5. 작품과의 인물 대비 |
| 3. 활빈당의 성격과 그 배경 | (1) 허균의 「홍길동전」 |
| 4. 작품의 전개양상 | (2) 박종화의 「錦衫의 피」 |
| (1) 개인과 사회의 갈등 | 6. 결 론 |

1. 서 론

우리의 현대문학 연구는 남·월북작가의 해금을 맞이하여 종전의 해방 이전에서 해방 이후까지의 문학연구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실 해방 이전까지의 문학이 곧 한국 현대문학의 전부로 인식되기에 너무나 빈약하다. 筆者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 직후(1945. 해방~1950. 6. 25이전) 문학연구의 일환으로 박태원의 「洪吉童傳」을 논하고자 한다.

요즈음 월북작가 박태원과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논의되고 있는 작품은 주로 그의 代表作이라고 칭하는 것으로써, 1930년대 사회상을 반영한 「川邊風景」과 私小説的 경향이 강한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 등 몇 작품 뿐이다. 그 외 趙東吉은 「愚民」¹⁾을, 朴南澈은 「川邊風景」과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을

1) 趙東吉, 「現實의 題材의 小說化와 그 限界—「愚民」의 경우」 論文集 25, 공

제외한 박태원의 作品을 前·後期로 나누어 다룬 바 있다.²⁾ 특히 李在銑은 박태원이 最近에 북한에서 집필한 「甲午農民戰爭」를 다루기도 하였다.³⁾

本橋에서 다루고자 하는 「洪吉童傳」은 朴泰遠의 作品 中 비교적 조명을 받지 못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사실 「洪吉童傳」하면 허균의 「洪吉童傳」을 금방 연상하나 朴泰遠의 후기 작품인 「洪吉童傳」은 學界에 作品조차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⁴⁾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지금부터 40여년 전 丁亥(1947년) 7월 作으로써 그 해 金融組合聯合會가 단행본으로 發刊한 作品이다. 金融組合이 소위 協同文庫라 하여 1947년에 동시에 發刊한 作品은 박태원의 「洪吉童傳」 이외에도 채만식의 「許生傳」, 金永錫의 「李春風傳」, 李明善의 「洪景來傳」 등 4 作品이 있다. 이 중 「洪吉童傳」과 「李春風傳」은 朝鮮朝 古小說을 改作한 것인데, 後者는 古小說의 원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改作한 것임에 비하여 前者는 홍길동의 〈活貧黨〉의 괴수 혹은 행수 → 백성 구휼이라는 측면에서 作品을 전개하면서도 조선조 전기에 있어서 가장 격동이 심한 시대를 배경삼아 그 격동의 현장을 아울러 다룬 作品이다. 특히 당대(연산군조)의 내막이나 조정의 비리, 연산군의 황음무도 폭로, 지방관리의 부정부패 비판 등을 비롯하여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반정 등 당대의 政治史가 거의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결국 박태원의 「洪吉童傳」의 전체적인 틀은 허균의 「洪吉童傳」

주사대 1987.

2) 朴南澈, 「朴泰遠小說研究」, 한양어문연구 4, 한양대어문연구회, 1986.

3) 李在銑, 「갑오농민전쟁論—사회주의 역사소설과 그 한계」, 文學思想 200. 1989. 6.

4) 最近에 鄭賢淑이 박태원의 「洪吉童傳」을 歷史意識과 民衆意識面에서 다룬 바 있는데, 그의 論文 전체로 보아서 이 作品은 거의 무시되어도 좋을 만큼 단편적으로 논의하였다. 단, 이 作品을 최초로 다루었다는 데 문학연구사적 의의는 있다. (鄭賢淑, 朴泰遠小說研究, 이화여대 대학원〈박사학위〉, 1990 참조)

식 수법에다가 작가 나름의 연산군조의 역사의식을 가미한 것이다.

박태원의 後期作品(해방~6.25 이전의 작품)에는 「洪吉童傳」을 비롯하여 「掠奪者」⁵⁾ 「漢陽城」⁶⁾ 「임진왜란」⁷⁾ 「群像」⁸⁾ 등의 장편과 「春甫」⁹⁾ 「太平盛大」¹⁰⁾ 「귀의 悲劇」¹¹⁾ 등 단편이 있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역사소설이란 점이다.

그의 초기작품은 집단적 이념의 추구와 경향을 보여 온 계급소설과는 달리, 개인의 의미와 그 존재양식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 일으킨 모더니즘의 정신적 지향을 대변하고 있다¹²⁾는 평을 받을 만큼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오히려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 큰 실망을 갖게 되자, 다시 통속적인 역사소설의 창작에 임하면서 소설적 긴장을 풀어 해치고 만다.¹³⁾ 이런 가운데 「洪吉童傳」이외의 작품은 未完의 작품이라 더욱 아쉬움을 느낀다. 특히 「洪吉童傳」은 해방 직후 역사소설 중에서 민중의식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서술된 작품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요즈음, 해방 직후의 문학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洪吉童傳」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는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¹⁴⁾ 이상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박

5) 조선주보, 1946. 1.

6) 여성문화, 1945. 12

7) 서울신문, 1949. 1~12.

8) 조선일보, 1949. 6~1950. 2.

9) 신문학, 1946. 8.

10) 경향신문, 1946. 11~12.

11) 신천지, 1948. 8.

12) 권영민, 「박태원의 도시적 感性과 소설적 想像力」, 韓國解禁文學全集 4. 삼성출판사, 1988, p. 406.

13) 권영민, 前掲書, p. 408.

14) 朴南澈은 <박태원의 후기소설의 인물들은 지배계층이거나 상층부에 군림하는 지식층이 아니라 피지배계층이며, 피지배계층 중에서도 신분이나 경제력의 측면에서 압박받는 부류>임을 밝히면서 박태원의 후기소설 7편을 최초로 단편적이나마 다룬 바 있다 (朴南澈, 前掲 論文, p. 235 참조).

태원의 「洪吉童傳」은 이 기회에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本稿에서는 박태원의 역사소설관, 활빈당의 성격과 그 배경, 작품의 전
개양상, 타작품과의 인물대비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좀더 역사의식 측
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다음의 과제이다.

2. 박태원의 역사소설관

박태원의 역사소설관을 논의하기 전에 역사소설의 개념과 이 작품의
역사소설 성립 가능성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다.

역사소설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내릴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역사소설이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소
설,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通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通念 가지고는 조금 미진하고 문제가 있어 論者마다 그
개념에 관한 설명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 ① 歷史的 事實에 충실하면서 同時에 文學的인 여러 條件 — 普遍性, 自己完結性, 形象性, 具體性 등 — 을 充分히 갖춘 허구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될 때 一般近代小說과는 다른 매우 複雜한 性格을 지닌 文學樣式¹⁵⁾
- ② 역사를 소재로 하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소설¹⁶⁾
- ③ 過去에 素材와 舞臺를 가진 小說을 通稱하는 것¹⁷⁾
- ④ 歷史小說도 小說인 이상 하나의 小說이 될 뿐, 小說 以上の 것도 아니요 小說 以下の 것도 아니다.¹⁸⁾
- ⑤ 우리 나라의 근대역사소설의 개념을 광의로 지난 날의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특별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재현 혹은 재창조하는 소설¹⁹⁾

15) 宋百憲, 韓國 近代歷史小說研究, 三知院, 1985, p. 13.

16) 白樂晴, 「歷史小說과 歷史意識」, 창작과 비평 5호, 1967 봄호, p. 6 참고.

17) 玄鎮健, 「歷史小說問題」, 文章, 1939. 12, p. 129.

18) 朴鍾和, 「歷史小說과 考證」, 文章, 1940. 10, p. 136.

19) 나준호, 박종화의 역사소설연구. 전남대 대학원(석사), 1987, p. 12.

- ⑥ 바람직한 의미의 역사소설은 과거 세계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통한 인간의 시간성을 특히 중시하면서, 지난 날의 역사적 삶을 오늘날의 현재적 삶과 일체적으로 조응시키는 소설²⁰⁾
- ⑦ 역사상 實在한 사건들을 그것도 큰 사건 큰 인물 중심으로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인물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를 예술적 수단에 의해 보여주는 것²¹⁾
- ⑧ 역사소설은 영웅소설에서 유래했다. 영웅소설은 실제의 또는 가상의 역사를 다루어 위기 극복을 문제삼았으므로 역사 소설과 다르지 않다.²²⁾
- ⑨ 첫째, 소재로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취급되어야 하고, 그 역사적 史實은 역사의 변천에 원동력이 되는 典型的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소설로서 構成的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歷史意識이 있어야 한다. 넷째, 역사소설은 나름대로의 특수한 樣式과 構造를 갖는다는 점이다.²³⁾
- ⑩ 어떤 한정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시대에 활동한 인간상이나 사회성을 작가 나름대로의 투철한 역사의식에 의해 썩어진 소설²⁴⁾
- ⑪ 과거의 재료를 현대소설의 美學條件에서 再組織을 하여 現代의 生命을 그 史實에 부여하고 更生, 復活시킨 것²⁵⁾
- ⑫ 歷史에 바탕을 둔 小說이다. 그러나 歷史에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歷史 그 자체일 수가 없으며, 作家의 想像力에 의하여 再構된 하나의 픽션(fiction)의 세계이다.²⁶⁾

이렇게 볼 때, 위의 개념들은 다섯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조건 중심 - ①, 소재중심 - ②③⑥, 양식중심 - ④⑤⑦⑩⑪⑫, 유래중심 - ⑧, 종합적 개념 - 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論者들은 양식중심으로 그 개념을 파악하여 본격적 형태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역사소설의 개념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충실한 역사적

20) 민현기, 「역사소설, 그 虛構와 眞實」, 世界와 나. 15호, 1991. 1. p. 360.

21) 洪禎云, 韓國 近代歷史小說研究, 東國大大學院(박사), 1987, p. 17.

2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8, p. 294.

23) 洪性岩, 「歷史小說의 史的 考察」, 한양어문연구 4, 한양대어문연구회, 1986, pp. 167-168.

24) 金章東, 朝鮮朝 歷史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6, p. 13.

25) 白 鐵, 「歷史事實과 現代作品」, 自由文學, 1963. 5, p. 183.

26) 趙鎮基, 韓國 現代小說研究, 學文社, 1984, p. 261.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역사의식에 의하여 再構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충실한 역사적 사실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재 → 역사, 무대 → 과거, 배경 → 과거, 인물 → 역사적 인물, 사건 → 역사적 사건 등이 작품속에 충실히 용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박태원의 「洪吉童傳」이 역사소설로서의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洪吉童이 實在人物인가 하는 점이다. 조동일은 허균의 「洪吉童傳」을 두고 〈허균은 이 오랜 유형(필자주－주몽 이야기나 탈해 이야기 이래로 천년 이상 전승되어 온 ‘영웅의 일생’)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실재인물 홍길동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고 또 한편으로 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형상화했던 것이다.〉²⁷⁾라고 하면서 홍길동을 실재 인물로 보고 있다. 또 金起東은 正史인 왕조실록 燕山君 日記를 추적 조사한 결과 연산군 때 洪吉同이란 인물이 허균의 「洪吉童傳」의 주인공 洪吉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길동전」을 완전한 허구소설로 보고, 또 주인공 홍길동을 가공인물로 보았던 견해를 시정해야 하겠고, 「홍길동전」을 소재면에서 볼 때 역사소설로 보아야 하겠으며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연산군조의 실존 인물로 보아야 하겠다는 것이다.²⁸⁾

홍길동이가 實在人物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허균의 「洪吉童傳」에서 實在人物 홍길동을 형상화했다는 데는 설득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林熒澤은 아래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선 역사소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역사사실과 합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경우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배경을 보더라도 실제 사실은 연산군 때인데 작품에서는 세종때로 하고 있고, 또 역사적 사

27) 趙東一, 「영웅의 일생과 홍길동전」, 金東旭 解説, 許筠研究, 새문社, 1989. pp. 1-30.

28) 金起東, 「홍길동은 實在人物」, 小說文學 70, 1981. 9, 小說文學社, p. 205.

실로서의 홍길동과 아주 다르게 꾸며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체포되어 처형되는 홍길동이 작품에서는 울도국으로 가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든지 홍길동이 국왕과 회담하는 장면이라든지 하는 내용은 역사소설적인 허구를 넘어선 것이죠.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소설의 개념에 걸맞지 않은 것입니다.²⁹⁾

여기에 대해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그 주인공이 비록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연산군때의 홍길동으로서 가공인물이 아니기에 역사소설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第八章에서 작가는 홍길동이가 <해인사를 들이친 전후 곡절에 관하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저술된 고본 「홍길동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³⁰⁾ (드러냄표-필자주)라고 전제한 뒤 그것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고본 「홍길동전」은 단순히 소설로 볼 때에는 흥미가 아주 없지도 않으나 문헌(文獻)으로서의 가치는 별로히 없는 저술이다.>³¹⁾라고 말하면서 <「해인사 사건」 하나만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된다.>³²⁾라고 했다. 이것은 홍길동이 실제 인물임을 염두에 두고 작가가 「洪吉童傳」을 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작가는 홍길동이 연산군조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알고 이 작품을 개작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작품의 맨 뒤 <책 끝에>에 나오는 작가의 말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내용의 일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책 끝에>에서 단순히 연산군이 <가장 어둡고 어지러웁고 또 추악하던 인군>³³⁾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그 시절을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위의 인용문 드러냄표 부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홍길동이 세상을 떠난 뒤에 허균이 「洪吉童傳」을 지었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작가는 허균의 그것에 나오는 주인공 홍길동

29) 林笑澤·姜玲珠編, 碧初 洪命憲 「林巨正」의 재조명, 사계절, 1988. p. 37.

30) 朴泰遠, 洪吉童傳, 金融組合聯合會, 1947, p. 80.

31) 朴泰遠, 前揭書, p. 83.

32) 朴泰遠, 前揭書, p. 83.

33) 朴泰遠, 前揭書, p. 175.

은 분명히 작품 창작시대의 실존인물은 아니지만, 홍길동의 인물 자체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몰라도 실존인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작가는 홍길동을 실존인물로 생각하고 이 작품을 구상한 것만은 틀림없다.

한편 第九章과 第十五章에서도 고본 「홍길동」의 일부를 인용하고 난 후 그것이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박태원의 「洪吉童傳」이 허균의 그것과는 달리 사건을 사실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도록 개작한 작품임을 암시하고 있다.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주인공이 가공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고, 연산군때의 무오사화 → 갑자사화 → 중종반정까지의 파란 많은 政治史가 歷史的 事實의 바탕 위에 쓰여져 있음으로 역사소설로서의 성립은 가능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역사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검토해 보았고, 본 작품이 과연 역사소설인가 하는 문제도 점검해 보았다. 여기서 역사소설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역사의 실체이면서 변화의 담당자인 민중과 그들의 사회와 구체적인 삶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박태원의 「洪吉童傳」과 시대적 배경이 같은 박종화의 「錦衫의 피」는 역사소설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의미있는 역사소설로는 보기 어렵다. 이 작품은 연산군을 주인공으로 하여 궁중 내부의 음모나 암투 등 궁중비사를 그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역사파악의 근거가 빈곤한 데서 나온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지배자의 것으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전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박종화의 작품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에 발표한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등의 역사소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작가의 역사의식은 변모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중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삶과 의지, 행위와 정서를 통해 집단적 삶의 구체성 혹은 사회상을 통시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합당한 소설로서 시발점이 된 것이 박태원의 「洪吉童傳」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민중중심의 역사소설이며 의적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물론 1930년대에도 이러한 민중의식 구현의 역사소설이면서 의적을 모티브로 한 소설로 홍명희의 「林巨正」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와서 발표된 황석영의 「張吉山」은 박태원의 「洪吉童傳」을 이은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학계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와 역사의 진전을 지배자의 것으로 한정하고 역사의 실제요 변화의 주체인 민중과 그들의 사회나 구체적인 삶을 제외시킨 왕조사관이 잘못된 것이라 함을 깨닫게 되었다³⁴⁾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박태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민족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파악, 작품을 통하여 과거 민중의 삶의 구체성 혹은 사회상을 보여 줌으로써 작가의 시대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다.

박태원의 역사소설관은 그의 역사소설 전체를 분석해야만 온전한 파악이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박태원의 역사소설 중 「洪吉童傳」 이외의 것은 전부 未完의 작품이라 총체적인 역사소설관의 파악은 어렵기에, 부득이 「洪吉童傳」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洪吉童傳」에서 볼 수 있는 그의 歷史小說觀은 그 이전에 발표한 창작집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文章社, 1938)과 장편소설 「川邊風景」(朝光 36.8~10. 37. 1~9)의 小說觀과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1930년대 말에 安懷南의 「作家 朴泰遠論」의 一部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氏が 私談으로 短篇小說 「愛欲」에 對하여 나의 意見을 물었을 때에도 나는 仇甫의 作品에서는 小說로서 失敗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意味의 말을 한 일이 있다. 이러한 對答은 語不成說인 것 같으나 作家 朴泰遠氏에게 있어서는 허튼 수작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왜초부터 失敗할 世界에다 붓을 대는 作家가 아니기 때문이다. 自己가 가지고 있는 本錢에다 무엇을 特別히 플러쓰하는 일도 없지만 絶對로 마이너스도 하지 않는 計算法을 體得한 作家이다.³⁵⁾

34) 장양수, 「황석영의 『張吉山』論」, 동서문학 197. 1990. 12, p. 154.

35) 安懷南 「作家 朴泰遠論」 文章. 1939, 2, p. 147.

이렇게 安懷南은 그를 두고 〈自己가 가지고 있는 本錢에다 무엇을 特別히 플러쓰하는 일도 없지만 대신 絶對로 마이너쓰하지 않는 計算法을 體得한 作家〉라고 했다. 이것은 그의 기교주의를 두고 한 말이지만 그의 小說觀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小說觀이 歷史小說인 「洪吉童傳」에 이어져서 당시 燕山君의 갖가지 虐政과 醜行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들추어 냄으로써 朴鍾和의 「錦衫의 피」와 다른 歷史小說觀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歷史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이려는 작가의 객관적 시각과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燕山君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옳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歷史小說觀은 리얼리즘 추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보여 주는 歷史小說觀은 그의 1930年代 소위 身邊小說, 世態小說과 마찬가지로 客觀的 態度로써 客觀을 보는 리얼리즘의 확대 내지 심화라고 할 수 있겠다. 김성수도 박태원의 소설적 특징을 〈박태원 소설의 특징은 지적 기교주의보다는 지식인의 ‘객관적’ 시각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인인 소설가가 솔직하게 식민지 도시의 뒷골목을 묘사할 수 있었던 그 정직성과 꼼꼼함이 계속 지켜졌기 때문에 역사소설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소시민의 사고 방식과 도시빈민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내면서 알게 모르게 역사를 움직이는 다수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마련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³⁶⁾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도 이와 같다.

역사소설에서는 창작에 임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며, 현대소설의 경우보다 더욱 투철한 역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³⁷⁾ 그런데, 이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 〈무도한 인군을 죽이는 도리는 자고로 그 예가 있는 것이니 모든 백성은 우리 의병을 따르거라〉³⁸⁾

36) 김성수, 「汎甫 朴泰遠論」 首善論集, 12집 成均館大 大學院, 1987, p. 76.

37) 장영주, 「『장길산』과 역사적 진실성의 추구」, 創作과 批評 70, 1990, 겨울호 p. 90.

38) 朴泰遠, 前掲書, p. 151.

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 박태원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발전의 주체는 민중이고,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의식화된 민중의 생동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한편, 역사소설이 의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독자의 시대에 주는 우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³⁹⁾ 해방 직후 독자의 시대는 사회 혼란의 시대,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정치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시대였다. 이때 작가는 새임금을 태운 난여 행렬 장면을 통하여 독자가 거는 기대를 과거 이 작품의 주인공이 거는 기대를 떠올려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박태원의 역사소설관은 그의 1930년대 소설처럼 객관적 태도로써 객관을 보는 리얼리즘의 확대 내지 심화, 활빈당의 의병화에서 보여주는,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민중의식의 고취, 새 임금을 태운 난여 행렬 장면을 통한 해방 직후의 낙관적 전망의 우의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3. 활빈당의 성격과 그 배경

의적은 문제적 개인으로 흔히 서사체 문학의 주요인물이 되거나 그 자체가 주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서사체 문학에서 의적은 대부분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사회제도와 의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세계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 세계에 저항하며 자신의 이상적 세계를 향하여 탐색해 나가는 것으로 주요 패턴을 이룬다.

역사어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당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도적의 우두머리는 정사에 기록된 대로라면 민심을 교란시키고 국정을 어지럽힌 포악한 화적패이며 때로는 백성들과 합류하여 반역의 주모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적의 우두머리가 정치적 혼란기의

39) 장양수, 前揭書, p. 175.

서민들에게는 나쁜 화적패가 아니라 서민들의 욕구불만을 대변하여 해 소해 주는 의로운 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의적의 이야기는 당 대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전해져 서민층에서는 영웅으로 우상화되고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가져온다. 특히 역사적 위기나 격동기에 있어서 의적은 대단히 미화되어 초월적 능력을 가진 탁월한 영웅으로까지 부 각되며 이러한 의적의 스토리가 소설의 주요 모티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구조가 성행하거나 독자들의 압도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그 사회의 분위기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적 개인은 반드시 문제되는 시대가 선행하여 그러한 인물을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해 있을 경우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朴泰遠의 「洪吉童傳」은 이러한 의적 모티브로 된 1940년대 해방 직후의 작품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 나라 현대 소설 중 의적 모티브 소설은 앞에서도 잠깐 밝혔듯이 이 작품 외에도 홍명희의 「林巨正」과 황석영의 「張吉山」이 있다. 여기서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조선조 전기의 의적을 모티브로 한 유일한 소설로서 문학사상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허균의 「洪吉童傳」과 마찬가지로 의적으로 대표되는 「活貧黨」이 등장한다. 그러면 먼저 작품에 나타난 활빈당의 성격을 살펴보자.

그들의 주장은 이왕 도적질을 할 바에는 백성들의 기름과 피를 빨아서 배가 부를 대로 부른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본래 그자들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불쌍한 백성들의 재물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던 것을, 도루 찾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는, 그것을 본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자 의지없는 자들을 널리 구휼(救恤)하여 주

40) 洪禎云, 「林巨正」의 義賊 모티프 - 세계사적 개인으로서의 義賊 - 林焚澤・姜玲珠 編, 前掲書, pp. 151-152.

자는 것이다.⁴¹⁾

첫째 활빈당은 朝鮮朝 前期의 群盜 내지 義賊으로서 한동안 유행하였던 민중단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활빈당의 基本性格은 민중저항이다. 탐관오리들이 불쌍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활빈당이 도로 빼앗아 그것을 본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홍길동과 조성원의 海印寺 事件과 威鏡監營事件 등 활빈당의 활동에 대해서 〈탐학한 관원들을 징계하고 또 한편 불쌍한 백성들을 건지는 한 개의 의거(義舉)요, 쾌거(快舉)요, 장거(壯舉)〉⁴²⁾라고 평가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둘째 활빈당은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단체로써 그것의 基本性格은 救恤이다. 그래서 활빈당은 〈백성의 원수가 아니라 실로 백성들에게는 좋은 벗〉⁴³⁾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허균의 「洪吉童傳」에서의 활빈당 역시 〈백성의 지물은 추호도 탈취치 말고 각읍 수령과 방백의 준민고탈하는 지물을 노략하야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홀지니〉⁴⁴⁾하는 대목에서 기본성격은 의적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길동이 제제를 불러 의논 왈…中略(필자주)……만일 위티호 시절을 당하면 맛당이 시석을 무릅써고 인군을 도울지니 엇지 병법을 심쓰지 아니하리오.〉⁴⁵⁾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활빈당은 〈국가 위난에 대비하여 병법을 익히는 충의의 군단〉⁴⁶⁾으로써 無言 중에 「忠君」을 강조하다 보니 활빈당의 본뜻이 다소 약화되었다. 장양수도 〈「홍길동전」의 경우 (허균의 「홍길동전」을 지칭함-필자주) 그 무리의 이름이 ‘활빈당(活貧黨)’이면서 활빈(活貧)·구휼(救恤)에 대한 극히 짧은

41) 朴泰遠, 前掲書, p. 88.

42) 朴泰遠, 前掲書, p. 88.

43) 朴泰遠, 前掲書, p. 95.

44) 許筠 洪吉童傳, 완판본 14장.

45) 許筠 洪吉童傳, 완판본 13장.

46) 황폐강·정진형, 홍길동전, 시인사, 1984, p. 16.

추상적인 몇 어구(語句)가 보일 뿐 실제 그러한 활동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⁴⁷⁾라고 한 발언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박태원의 「洪吉童傳」에서 활빈당은 목적지향적 민중단체⁴⁸⁾로서 허균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것과는 달리 전형적인 의적이 가지는 갖가지 속성과 행동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救恤과 救國」이다. 다시 말하면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를 도움으로써 救恤精神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전고에도 없는 폭군 연산을 몰아내기 위하여 백성을 규합함으로써 救國精神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적소설에 대하여 장양수는 〈장길산은 전형적인 의적이요 이 작품 (필자주－황석영의 「張吉山」)은 전형적인 의적소설의 한 예범(禮範)〉⁴⁹⁾이라고 했는데, 박태원의 「洪吉童傳」도 의적 소설의 한 예범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활빈당은 구휼과 구국단체이며, 그들이 싸워 찾아야 할 세계,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세계는 〈마음을 바로 하여 나라를 위하는 인군〉,⁵⁰⁾ 〈백성을 사랑하여 착한 정사를 베푸는 인군〉,⁵¹⁾ 〈흉년에도 부디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 인군〉,⁵²⁾ 〈착하고 어진 인군〉⁵³⁾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허균 작품의 율도국, 연암 「허생전」의 空島 등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이기도 하다. 다만 본 작품의 이상세계는 중세 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난 근대시민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활빈당 내지 작가의 역사인식 방향인 것이다. 박태원은 당시의 경제와 사회 기강 혼란, 민생 불안, 정치

47) 장양수, 前掲書 p. 166.

48) 한완상, 「민중의 사회적 개념」, 민중, 文學과 知性社, 1984, pp. 58-64.

49) 장양수, 前掲書, p. 171.

50) 朴泰遠, 前掲書, p. 172.

51) 朴泰遠, 前掲書, p. 172.

52) 朴泰遠, 前掲書, p. 172.

53) 朴泰遠, 前掲書, p. 172.

불안, 국가 발전의 정체 현상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민중운동의 前史를 조선조 전기의 홍길동의 활빈당으로 대표되는 민중운동(구휼·구국운동)으로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활빈당의 기본성격을 중세사회(16C) 민중저항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활빈당의 경우 그것이 군도(群盜), 의적(義賊)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활빈당의 역사적 배경을 논의하기 전에 군도 내지 의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형택은 군도(群盜)란 민(民)의 한 존재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봉건사회가 백성을 토지에 묶어두고 있으나 봉건적 억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백성이 그들의 생활근거지로부터 이탈하여 집단을 이루어 일정하게 봉건지배층을 향해 무력적 저항 활동을 벌일 때, 이것이 이른바 군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군도는 언제부터 생겼느냐가 문제인데, 임형택은 이러한 군도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봉건사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났고, 우리의 경우 신라말에 치열하게 일어나서 왕조의 붕괴로까지 발전하였으며, 조선조 초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16세기가 시작되는 그 때 홍길동의 저항이 있었고, 그 후에 조선조 전기 최대의 농민저항으로 볼 수 있는 임궽정의 반란이 일어났다⁵⁴⁾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활빈당은 16C 초에 일어난 조선시대 군도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임궽정의 반란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서 활빈당이 생기게 된 배경은 第六章에 나온다. 1505년 乙丑年 6월, 연산이 「採紅駿使」 「採靑使」라는 희귀한 벼슬을 만들어 그들에게 美女와 良馬를 구하여 들이라고 함으로써 황음무도의 절정기를 이룬다. 이 때 홍길동은 조생원과 봉학이 이끄는 대로 동문 밖을 나서 월파루(月波樓)에서 술잔을 들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54) 林榮澤·姜玲珠, 前掲書, p. 28 참조.

여기서 홍길동이 말한 주요 대목이 바로 그 배경이 될 수 있다. 날씨가
저 가문데다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연산마저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행위를 묵인해 주는 등 문란한 정
사, 그리고 그의 황음무도 행위, 이러한 것들이 활빈당이 생기게 된 배
경인 것이다.

또 第十四章에서는 우변 포도대장 이흠이 토끼 벼루 적국에서 활빈
당을 비난하니까 조생원은 그 말을 듣고 활빈당이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도 나온다. 조생원 역시 연산군의 황음무도,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 백성들의 도탄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빈당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인 면에서 연산군때 군도 내지 의적이 생기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저항의 규모 등은 아래의 임형택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임 : 우선 임격정으로 오기까지 농민저항의 발전과정을 보면 성종 말년인
1489년에 김작동부대가 등장하여 평안도를 중심으로 7년간 활동한 것이 나타
납니다. 그리고 1496년에 이것이 토벌되고 1500년경에 홍길동이 경기 충청과
경상 북부에 미치는 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활동을 하며, 그 후 1530년경 순석
(順石)부대가 나타나 전라·충청·경기 삼도에 걸쳐 지방적 연계를 맺고 투
쟁했는데 그 규모는 일당 39인이 관군에게 붙잡히고 다시 연루되어 체포된
숫자가 무려 170여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로 발전했던 모양
입니다. 그 다음에 임격정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필 이 시기에 군도형
태의 농민저항이 격화되었던가를 저 나름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中略 (필자주)…

관료 양반층의 이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필수록 농민은 영락
의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즉 15세기 후반부터 양인 농민층의 몰락이 현저하
게 되는 것입니다. 양반들의 토지의 과다 결빙과 관료들의 과도한 수취로 농
민들은 전디다 정 전딜 수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망(逋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이 증언하는 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들어와
서 국가가 파악하는 호구가 격감하여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백리 사이에 연
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국가의 파악으로부터 이탈한 농민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거지가 되어 떠
돌아 다니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떼를 지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울 수

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군도거든요. 조선왕조의 정치모순의 뚜렷한 정표로 연산군이 출현하였으며 이 시기에 홍길동이 등장한 현상 또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⁵⁵⁾

4. 작품의 전개양상

본격적인 역사소설의 견지에서 볼 때, 역사소설의 구성방식은 이중적 전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외형적인 구조를 이원화하는데, 즉 역사적인 배경으로서의 공적인 사건의 전개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사건의 전개이다. 그러나 이 두 요소가 서로 분리됨이 없이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지녀야 한다. 그럼으로써 작품의 통일성과 미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⁵⁶⁾ 朴泰遠의「洪吉童傳」역시 二重構造⁵⁷⁾로 되어 있다. 하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사건의 전개(이 작품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 활빈당과 탐관오리의 대립),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으로서의 공적인 사건의 전개(이 작품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문제화, 反연산과 연산의 대립, 활빈당과 연산과의 대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이 두 요소가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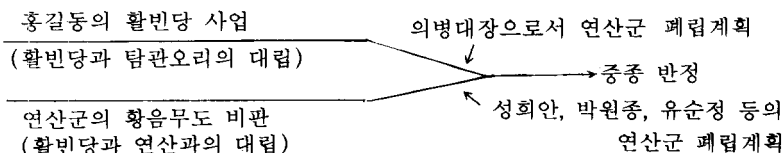
(1) 개인과 사회의 갈등

소설에서는 세계의 우위도 인정되지 않고 자아의 우위도 인정되지

55) 林焚澤·姜玲珠, 前掲書. pp.30-31.

56) G. Lukacs, The historical Novel, trans, Hamnah & S. Mitchell, (peregrine Books, 1976), p. 47. (洪禎云, 前掲論文, p.37 재인용)

57) 본 작품에 나타난 二重構造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않는다. 자아와 세계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대결을 계속하면서 분열된 시대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소설의 특징이다.⁵⁹⁾ 자아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고, 세계는 자아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소설서 추구되는 총체성의 심각한 양상이 있다.⁵⁹⁾ 박태원의 「洪吉童傳」에서 추구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의 총체성이다. 앞에서 활빈당의 성격과 그 배경을 밝혔는데, 이 홍길동의 救恤과 저항행위가 당시 민중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여기서 홍길동은 의적으로서 민중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本項에서는 소위 활빈당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탐관오리와의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작품에서 활빈당이 탐관오리와 대립하게 된 배경, 과정, 그리고 결과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겠다.

배경은 第八章에 나온다.

당시 공조참판 임사홍(任士洪)의 아들 임승재(任崇載)의 음흉하고 교활한 행위 등을 폭로하면서 탐관오리에 대한 실태를 공개한다. 결국 작가는 燕山君朝에 포박한 임금도 문제지만, 그 임금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탐관오리들도 큰 문제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홍길동의 救恤과 저항행위를 불러 들이고 말았다는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第三章에서 작가는 홍길동이 집을 나와 경상도 선산에 와 있을 때 〈주색으로 일을 삼고 공사(公事)는 도무지 돌보지 않는〉⁶⁰⁾ 남경(南景)이라는 부사와 〈원빈과 부동이 되어 백성들 울여 먹기에 이골이 난 이방〉⁶¹⁾의 비리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다.

以上の 탐관오리 비리폭로는 작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홍길동의 救恤과 저항행위를 정당화시켰는데 第六章에 오면 이 작품에서 홍길동

59) 趙東一「영웅의 일생과 홍길동전」, 前掲書, p.1-26.

59) 趙東一「영웅의 일생과 홍길동전」, 前掲書, p.1-27.

60) 朴泰遠, 前掲書, p.28.

61) 朴泰遠, 前掲書, p.29.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생원의 입을 통하여 불행한 시대상을 한탄하면서 백성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는 대목이 나온다. 홍길동 자신이 제일 먼저 대립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바로 관가의 탐관오리들이다. 지배층에 짓밟히고 있는 하층민을 구하는 것이 사회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짓밟히고 있는 하층민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자 하는 주인공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백성들의 기름과 피를 빨아서 배가 부를 대로 부른 탐관오리들의 재물을〉⁶²⁾ 빼앗아서 도로 빼앗긴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한다. 8도의 수령 방백 가운데 가장 탐학(貪虐)한 자들을 응징(應懲)하여, 불쌍한 백성들을 구휼(救恤)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의적행위를 통하여 탐관오리를 징계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이룩하고자 했다.

그 후 홍길동이 본격적으로 관가의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第九章에서 〈해인사 사건이 있는 지 미처 십여일이 못되어〉⁶³⁾ 함경 감영을 습격함으로써 맨 먼저 이루어진다. 그 후 장수산패를 동원하여 황해도 대령군수 습격, 광복산패를 동원하여 이천 현감 습격, 용문사 패를 동원하여 경기도 지평현 습격, 제룡산패를 동원하여 충청도 공주 목사 습격, 용화산 패를 동원하여 익산 군수 습격 등 8도 중 경상도를 뺀 7도를 모두 골고루 돌았다. 또한 홍길동은 팔도에서 빼앗은 재물은 반드시 할빈당의 피해를 받은 고을⁶⁴⁾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의지 없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크나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당시 의적으로 대표되는 활빈당 활동의 문학적 형상화임을 알 수 있다. 의적은 민중의 집단이다. 민중은 자기 자신의 상황과 그의 행복할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각성의

62) 朴泰遠, 前掲書, p. 88.

63) 朴泰遠, 前掲書, p. 85.

64) 朴泰遠, 前掲書, p. 97.

계기를 가짐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역사참여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특히 第十三章에서 보여주는 활빈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마치 여러 날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청량감이 있다. 일반 양민이 활빈당이 출몰한 것을 알아도 관가에 고하지 않는다는 관가의 벼슬아치가 오히려 활빈당 편을 들고 있는 장면은 민중의 자기 각성을 표현한 것으로써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민중의 자기 각성은 자기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자에게 순응하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현실을 새로이 보고 자아를 비로소 발견하여 부조리한 세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타나기 마련이다. 활빈당이 출몰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가에 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회가 그만큼 깊은 질곡을 백성들에게 가했고, 민중들의 새로운 개혁을 바라는 열망이 그만큼 더 간곡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第十四章에서 토포사 이흠이 활빈당 두령으로서의 신분전환은 활빈당의 또다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활빈당 사업의 초기에 해당하는 활빈당과 탐관오리의 대립에서 활빈당이 대승(大勝)을 거두는 장면으로 마무리 된다. 이는 작가가 古小說의 「권선징악」수법을 그대로 도입하면서도 과거의 현실을 오늘이라는 거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지나간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에서 민중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역사적 사건의 문제화

동양의 역사소설 발전과정에 대해서 임형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임 : 동양의 경우는 역사소설의 발전과정이 저쪽과 다르기 때문에 루카치의 역사소설이론이 삼국지를 비롯한 역사소설을 설명하는데 맞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 역사소설의 발전은 강사(講史) 즉 연의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의란 역사의 소설화인데 앞서 설화인의 이야기 종목에 강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대중이 흥미롭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각색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동양의 역사소설은 자연히 역사 사실 자체에 충실하면서 이야기를 흥미롭게 엮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국지』가 대표적인 예이고 각 시대마다 그런 식의 연애 소설이 나왔습니다.⁶⁵⁾

결국 동양의 역사소설은 연의(演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박태원 역시 역사의 소설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을 쓸 때 역사사실 자체에 충실한 소설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가득 차지 않았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第二章부터 역사적 사건의 문제화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홍길동과 그밖에 연산군조의 무오사화→임금의 황음무도→중종반정 등의 일련의 사건과 그에 관련된 인물이 허구가 아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소설적 전개에 있어서 박태원의 自作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는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작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결여된 것 같지만 그만큼 리얼리티가 있다는 말이 된다.

앞의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서 본 배경 - 과정 - 결과의 구조가 본항(本項)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본항(本項)에서는 활빈당 사업의 후기에 해당하는 연산군과의 대립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 시발점은 第二章, 第五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第二章에서 甲子士禍의 배경이 소개된다. 물론 第一章에서 戊午士禍가 잠깐 언급된다. 여기서 작가는 단순히 무령군 유자광(柳子光)의 인물 묘사를 하는 가운데 그가 무오사화의 주동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작가는 甲子士禍에 더 무게를 두는 데 <그 참혹한 품이 앞서 여섯 해 전에 있었던 「무오사화(戊午士禍)」보다도 몇 곱절이나 더 하였기>⁶⁶⁾ 때문이다. 그리하여 第二章에서 약 3쪽을 할애하여 甲子士禍의 배경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있다.⁶⁷⁾ 이 甲子士禍는 홍길동이 집을 나간지

65) 林榮澤·姜玲珠, 前掲書, p. 114.

66) 朴泰遠, 前掲書, p. 21.

67) 조선 초기의 사회경제적 모순의 누적에 연산군 이후 거둬지는 士禍의 근본 원인인데, 이 작품에서는 연산의 황음무도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칠 안 있어 일어났다고 했다. 이것은 甲子士禍 이후의 정치상황은 홍길동과 활빈당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홍길동이 火賊志望 → 활빈당의 행수 → 활빈당의 각도 수령·방백 습격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05年으로써 甲子士禍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 해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1504년 10월의 甲子士禍 → 1505년의 활빈당사건 → 1506년의 중종반정으로 이어지는 3년이다. 앞 항(項)에서 임형택은〈1500년 경에 홍길동이 경기 충청과 경상북부에 미치는 지역에 상당한 규모로 활동을 하며...〉⁶⁸⁾라고 발언한 것을 소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임형택의 발언과 이 작품에 나타난 활빈당 사건의 발생 연대는 거의 일치함을 엿볼 수 있다.

第二章에서 작가는 甲子士禍의 배경 소개에 이어 연산 교사(驍奢)와 황음무도를 시간적 순서에 의해 폭로하고 있다. 이 폭로된 사실은, 필자가 歷史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 1504년 甲子士禍가 일어난 바로 그 해의 일임이 판명되었다.

第五章은 1505年, 연산이 왕위에 오르지 11년째 되는 을축년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때는 연산군의 교사(驍奢)와 황음무도 행위가 극도에 달한 해였고, 홍길동의 연산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은 해였다. 특히 이 때는 貢納制 중에서 進上이 반복됨으로 해서 백성들은 더욱 도탄에 빠져야만 했다. 歷史書에서는 進上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다.

進上이라고 하는 것은 國王에 대한 地方官의 儀禮인 헌납을 의미한다. 그것은 國王의 御善을 비롯하여 魚物·果物 등 宮中の 祭享用 등의 食料品을 주로 하여, 각 道の 觀察使, 兵使, 水使가 상납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州縣에 배당되어 실제에 있어서 民戶에서 징수하게 마련이어서 넓은 의미에서 이 역시 貢物과 다름이 없다.… 中略(필자주)… 특히 宮中 생활에서 濫費가 심했던 燕山君 때에 貢物額은 加定되어 民戶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貢納의 폐는 그 부담량의 過多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貢物은 각기 지방의 土產

68) 林煥澤·姜玲珠, 前掲書, p. 30.

物로서 정해진 것이나 그 土産物이 때에 따라 그곳에서 생산되지 않게 되어
도 既定의 貢納 의무를 저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地方民은 타처
에서 같은 物種을 구득 상납해야 했다.⁶⁹⁾

이렇게 되다 보니 사회적으로 <離農 현상이 일어나고 유언비어가 나
돌며 민심이 흉흉했던 것>⁷⁰⁾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위에 농촌의 피폐
로 각지에서 유민과 群盜가 야기되었는데>⁷¹⁾ 홍길동의 활빈당도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임금과의 대립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결국 그 해(1505년) 홍길동은 8도의 중요 탐관오리들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임금인 연산군에 대한 첫 번째 도전으로써 소위 선
전포고를 하는 장면이 第十二章에 나온다. 전국 각지에서 활빈당 사건
이 일어나도 조정의 삼공육경(三公六卿)만 알고 있지 임금인 연산군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 홍길동은 <황해 감사가 탐도 불법(貪饕
不法)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뻗혔기로 봉고파직(封庫罷職)하였
노라는 암행어사의 장계>⁷²⁾를 자기의 이름으로 조정에 보냄으로써 선
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임금의 귀에 들어가고 이어 <홍길동
이를 잡아들이되 한 달 기한을 어기지 말라는 인군의 분부를 받고>⁷³⁾
군사를 거느리고 좌변포도대장 김승호는 황해도로, 우변포도대장 이흠
은 경상도로 내려간다.

第十五章에서는 날로 더하여야만 가는 연산군의 황음에 대해서 점층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황음무도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것이 연산군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
면 나날이 흉포스럽고 야만적인 연산의 계속된 행동은 활빈당의 명분
을 탐관오리 척결에서 사악한 폭군 저지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만들

69) 韓祐勳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9. p. 281.

70) 李炫熙, 韓國史總論, 日新社, 1980. p. 188.

71) 李炫熙, 前揭書, p. 188.

72) 朴泰遠, 前揭書, p. 116.

73) 朴泰遠, 前揭書, p. 117.

었다. 서울 한 복판 종루(鍾樓) 기둥에 붙여진 한 장의 방문(榜文)은 연산군에 대한 두 번째 도전장이었다. <무모한 인군을 죽이는 도리는 자고로 그 예가 있는 것이니, 모든 백성은 우리 의병을 따르거라>⁷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부 활빈당의 행위보다 민중의 항거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홍길동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민중이 항거하여 임금을 제지함으로써 잘못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는 고단위 현실개혁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빈당은 그 성격이 의병으로 바뀌었다. 의적(義賊) 활동에서 의병(義兵) 활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홍길동 자신은 의병대장으로 변신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활빈당 행수로서 탐관오리의 척결에 주력하였는데, 앞으로는 의병대장으로서 연산군 폐립에 앞장 서겠다는 의미가 방문(榜文)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탐관오리의 징계와 빈민 구휼 차원의 사회개혁 지향에서 임금을 폐위시켜야 되겠다는 정치개혁 지향의 노선변화를 의미한다.

영웅이란 개인적 의지와 시대적 상황이 일치할 때 생겨난다. 이런 면에서 보면 홍길동의 활빈당 사업 초기에 비해서 후기의 변혁의지와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빈당 사업을 반성해 볼 때 1년동안 애를 썼지만 고을의 정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땅 위의 풀잎만 보지 말고 땅 속 깊이 박힌 뿌리를 뽑자는 것이다. 홍길동의 현실 인식이 결국에 가서는 변화되었다. 처음에 그는 의적행위(활빈당)를 통하여 탐관오리를 징계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이룩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뿌리를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임금부터 제거해야 하겠다는 봉건왕조체제 전복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치개혁 쪽으로 현실인식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는 <이

74) 朴泰遠, 前揭書, p. 151.

도 헛된 노력이었다.>⁷⁵⁾는 자기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시골에서 길동이 임금 폐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서울에서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의 무리들이 연산군 폐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리들의 계획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역사서에 의하면 이러한 燕山君의 폭정하에서 국민 상하의 원성은 극도로 높아졌다고 한다. 더우기 朝鮮王朝의 國是인 儒敎政治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王道政治를 이상으로 하는 儒臣과 士大夫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政治不在現象을 痛感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마침내는 일부 儒臣들에 의해 王의 廢立을 계획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⁷⁶⁾ 그래서 작가는 이들이 혁명가가 되어 연산군 폐립 → 중종반정에 성공하는 모습을 歷史的 事實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홍길동 및 활빈당은 중종반정에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빈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위주의적 통치, 독재정치에 대한 반작용을 분출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반작용을 새로운 질서로 수렴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그 위기를 맞은 것이다. 만약에 홍길동이 허구적 인물이라면 작가는 그를 중종반정에 직접 가담시켜 승리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인물은 작가의 주관적 지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홍길동은 <맨상투 바람의 젊은 농군>⁷⁷⁾의 모습으로 광화문 거리에서 새 인군을 태운 난여(鸞輿)의 행렬을 보다가 종적을 감추고 만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기 위한 작가의 배려이었고, 또한 당시 群盜(활빈당)의 정치적 실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대단원에서 보여주는 홍길동의 모습은 작가의 의도⁷⁸⁾와는 달리 의적은 혁명가로

75) 朴泰遠, 前掲書, p. 159.

76) 대한민국 문교부,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9, p. 178.

77) 朴泰遠, 前掲書, p. 172.

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원래 의적은 개혁자이지 혁명가는 아니며 그들은 단순한 행동자이지 사회조직이나 정치조직에 관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상가 내지 예언자가 될 수는 없다.⁷⁹⁾

이렇게 볼 때 이는 작가의식의 후퇴가 아닌 투철한 리얼리즘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작품으로 하여금 역사소설이라는 대명제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홍길동은 처음에 탐관오리를 척결한 반면 나중에는 연산의 굴복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탐관오리 척결보다 연산의 굴복 강요가 현실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은 당시 사회와 정치질서의 혼란의 뿌리인 연산의 황음무도가 해결되면 현실문제는 저절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게 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정확한 정책이나 어둠을 꿰뚫어 보는 정치적 비전은 갖고 있지 않다. 오직 연산보다 <착하고 어진 인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를 기대하고만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서 중종반정의 통쾌한 성공은 조선 왕조 중 가장 어둡고 어지럽고 또 추악한 연산군의 황음무도를 고발, 이를 역사의 이름으로匡正하고자 한 작가의 개작목적에 부합된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 정치적 비전의 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해방 직후의 상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중종반정의 승리 → 을유해방, 새임금이 탄 난여를 보고 만세 부르는 장면 → 해방을 맞이하여 만세를 부르는 모습, 홍길동이 새 임금에 거는 기대 → 작가가 해방된 조국에 거는 기대 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과거에 의탁하여 해방 직후의 낙관적

78) 작가의 의도가 나타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더구나 결말에 이르러서는 작자 자신 크게 불만이다. 모처럼 홍길동이란 이름을 살려보자고 붓을 들었던 노릇이, 결말에 이르러 아주, 죽이고 말았다.」(朴泰遠, 前掲書 p. 176.)

79) E. J. 홉스 보웬, 黃義坊 譯, 義賊의 社會史, 한길사, 1978, pp. 21-22.

전망을 우의적으로 나타낸 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 박태원의 해방 직후의 문학적 활동을 참고해 볼 때, 이 작품은 해방 직후 조선문학 건설본부, 조선문학가 동맹 등의 문학의 대중화운동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계급주의적인 작품은 아니다. 이 작품을 두고 볼 때 박태원의 역사관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보편적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족주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역사 소설관은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객관적 태도로써 객관을 보는 리얼리즘 확대 내지 심화,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민중의식의 고취, 해방 직후 낙관적 전망의 우의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5. 작품과의 인물대비

(1) 허균의 「洪吉童傳」

소설에 있어서 인물의 성격 창조의 문제는,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작가의 관점에 따라서, 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상화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할 것도 없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든 사회구조 내의 삶의 여러 양상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또한 삶에 대한 작가의 가치론적 해석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실적 이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 구실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일정한 시간적·공간적 상황 속에서 행동하며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소설의 인물들은, 한편으론 그러한 인물을 설정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제공자이기도 하다.⁸⁰⁾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두 작품(허균과 박태원의 작품)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 보겠다.

80) 민현기, 한국 근대소설과 민족현실, 文學과 知性社, 1989. p. 296

첫째, 허균 작품의 홍길동과 박태원 작품의 홍길동은 庶子로서 버림을 받은 人物이고 賊窟에서 魁首 혹은 行首가 되는 것까지는 같다. 특히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嫡庶差別의 廢止를 高調하고, 無爲徒食하는 地方土豪와 貪官汚吏의 財物을 빼앗아 貧民을 救濟하며, 百姓을 侵犯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屬한 財物을 秋毫도 犯하지 아니하였던>⁸¹⁾ 인물이다. 또 남달리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천비 소생만 아니었던들 능히 출장 입상하여, 대장부의 큰 뜻을 펼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약점 때문에 출세의 기회가 전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등도 동일하다.

다만 그 해결 방법을 찾는 태도에 있어서, 허균 작품의 홍길동은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착하는 인물인 반면에 박태원 작품의 홍길동은 자기 문제보다 오직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는 인물이다.

허균 작품에 있어서 홍길동은 활빈당 활동을 백성을 구제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활빈당 행수로서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고, 자기의 願(병조판서 제수)을 들어 주면 스스로 잡히겠다고 제안하면서 그의 제안에 반대하는 조정의 신하에게는 참소라 하여 붙잡아 들어 곤장을 내리치는 등 오직 자기의 출세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또 그가 평생 소원인 병조판서가 되자 조선사회의 서자차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해외무대로 발을 옮긴다든지 울도국에서 한꺼번에 세 부인을 맞이하는 등 사대부의 의식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만큼 그는 <모든 문제를 자기 개인의 차원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그쳤다>⁸²⁾ 이렇게 볼 때 허균의 작품에서 홍길동은 <자기본위의 사이비 영웅>⁸³⁾ <속물적인 소영웅>⁸⁴⁾ <왜소한 일상적 인물>⁸⁵⁾인 셈이다.

81) 鄭鉉東, 洪吉童傳 研究, 民族文化社. 1983, p. 5.

82) 황패강·정진형, 前揭書, p. 20.

83) 황패강·정진형, 前揭書, p. 24.

반면에 박태원의 작품에서 홍길동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前者의 홍길동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홍길동이 활빈당의 행수가 되는 과정에서 前者와 다르다. 그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활빈당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지방관리의 부정부패, 임금의 황음무도, 백성들의 경제적 궁핍 등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활빈당을 조직한다. 다시 말하면 前者의 홍길동처럼 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빈당의 행수가 된 것은 아니다. 박태원의 작품에서 홍길동은 개인적 삶 → 사회적 삶 → 민족적 삶으로의 변신을 계속하였던 인물이다. 홍길동은 가출하기 이전에는 열 일곱의 나이에 신세타령이나 하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홍판서와 형의 비리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산다. 그 후 이러한 삶에 불만을 품고 가출을 시도함으로써 개인적 삶을 청산한다. 그는 활빈당 행수가 되어 8도에 걸쳐 있는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출하는 데 앞장 섬으로써 사회적 삶을 누린다. 연산군조 마지막 무렵에는 이러한 사회적 삶의 한계를 느끼고 의병대장으로서 연산군 폐립운동을 시도하는 데 앞장 섬으로써 민족적 삶을 누리는 것이다.

둘째, 영웅의 형상화 측면에서 볼 때 두 작품에서의 홍길동은 보통 사람보다 다른 비상한 인물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허균 작품의 홍길동은 인위적인 영웅⁸⁶⁾이라면 박태원 작품의 홍길동은 자연적인 영웅⁸⁷⁾이다.

허균의 작품에서 홍길동은 태몽부터 신이(神異)한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이에 따라 영웅의 모습이 점층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어릴 때부

84) 황패강·정진형, 前掲書, p. 24.

85) 황패강·정진형, 前掲書, p. 24.

86) 비범한 영웅 즉 세계의 도전을 쉽게 물리치는 영웅을 지칭함(도술법 축지법 등으로).

87) 평범한 인물에 가까운 영웅. 세계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여 피로워하는 영웅을 지칭함(도술법, 축지법 등을 사용하지 못함).

터 영웅적 능력을 갖고 있는 홍길동은 도술법, 축지법, 분신술 등을 써서 자기 목숨을 유지한다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여기서 도술법, 축지법 등은 「신출귀몰지술」이며 비현실적 요소로써 작가가 자의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영웅의 소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인위적인 영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태원의 작품에서 홍길동 역시 영웅적 기질이 있다. 타고날 때부터 〈문장은 이백이요 품채는 두목지라〉⁸⁸⁾하여 품채의 뛰어난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람에 따라 활쏘기에 능하고, 몸은 표범처럼 날래고, 힘은 황소보다 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문무겸전한 당대기재(當代奇才)〉⁸⁹⁾라고 일컫고 있다. 다만 前者의 홍길동처럼 도술법 축지법 등을 부릴 줄 모르는 자연적인 영웅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신술(分身術)이다. 이 분신술은 前者의 홍길동도 활빈당 사업을 벌일 때 취했던 행동양식인데, 여기에서는 일종의 「지시」방법이지 「신출귀몰지술」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박태원의 작품에서의 활빈당 본부는 경상도 문경땅. 토끼 벼루패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각 도마다 하나씩 소위 지부역할을 하는 적당이 있다. 홍길동의 지시에 의해서 각 도의 지부가 임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다른 사람은 홍길동이 분신술을 부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태원의 「洪吉童傳」에서 이와 같이 영웅적 요소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은 근대에 접근한 소설이란 의미가 된다. 그러나 역사소설에서의 이러한 주인공의 설정은 역사를 추상화하기 쉽고, 작가의 개인적인 이상이 부과되어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역사상 진실성이 결핍될 수 있다.⁹⁰⁾

88) 황폐강·정진형, 前揭書, p. 33.

89) 황폐강·정진형, 前揭書, p. 45.

90) 洪禎云, 前揭 論文, p. 35.

(2) 朴鍾和의 「錦衫의 피」

「錦衫의 피」(每日申報, 1936. 3.20~12.29)는 暴君 연산군의 一代記를 그린 장편 역사소설로서 그의 〈初期 歷史小說 중에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作品〉⁹¹⁾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연산이다. 이 작품은 연산이 태어나고, 왕위에 오르고, 왕위를 빼앗길 때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연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조 중심의 역사소설로서 연산을 포함하여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한 시대의 전형을 이루는, 허구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적 인물이다. 반면에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서민의 反正의식을 자극하는 〈혁명사적인 역사소설〉⁹²⁾로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역사적 인물이 주가 되며 허구적인 인물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

朴鍾和의 작품에서 연산은 10대의 동궁시절과 20~30대의 상감의 시절로 나누어 인간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10대의 동궁시절에 연산은, 평소에 공부는 싫어하였지만 〈생기가 팔락팔락하고 또렷또렷하고 날렵〉⁹³⁾했다. 그러던 것이 폐비사건을 대략 눈치채고부터 〈음울하고 무겁고 진중해〉⁹⁴⁾진 인물로 변한다.

20대에 접어드는 동궁은 부왕 성종의 왕위를 잇게 된다. 성종은 1494년 甲寅年 12월 24일 묘시에 38세의 나이로 승하한다. 이때 동궁의 나이는 19세이다. 곧 이어 1495년 乙卯年, 나이 20세때 왕위를 물려 받은 상감 연산은 폐비의 복위와 원수를 갚는 일로부터 政事를 시작한다. 사실이 작품은 왕조 중심의 역사소설로서 親연산과 反연산의⁹⁵⁾ 대립구조로

91) 尹炳魯 現代作家論, 二友出版社, 1978. p. 139.

92) 임현영, 「격변기의 진상추구」, 유주현, 파천무, 동광출판사, 1990, p. 333.

93) 朴鍾和, 금삼의 피. 汎友社, 1984, p. 161.

94) 朴鍾和, 前掲書, p. 161.

95) 親연산은 연산과 그의 생각에 찬동하는 신하들을, 反연산은 연산의 생각에 반대하는 대립인물 전체를 각각 지칭한다.

되어 있다. 연산이 왕위에 오른 직후의 反 연산계열은 대왕대비와 여러 文臣들이다. 연산은 처음에는 反연산에 대해서 영특하고 참을성 있게 대처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다가 동산에서 두 사슴을 활로 쏘 죽임으로써 그의 방약무인한 성격이 드러난다. 작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신하와 대왕대비께서 막고 거슬림을 받은 울분한 심사가 연산의 마음을 부채질〉⁹⁶⁾했고 이어 〈상감 연산의 잔인하신 복수하려는 마음이 불꽃듯 일어〉⁹⁷⁾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주인공 편에서 주인공 연산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동정심을 발휘하고 있다.

연산이 왕위를 잇고 두 번째 政事의 시작은 〈글과 서적을 멀리하시니 남은 것은 삼천佳麗(三千佳麗) 어여쁜 후궁에게서 더 어여쁜 후궁속으로 난만한 젊음을 풍기는 것〉⁹⁸⁾이다. 작가는 이러한 행위가 〈마비적인 술과 부드러운 여자의 온유향(溫柔鄉)에서〉⁹⁹⁾나왔고, 폐비윤씨에 대한 울분을 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요컨대, 작가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도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부분 독자들의 입장에서, 연산의 행위는 절대로 동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는 연산을 〈한 시절의 풍류의 제왕〉¹⁰⁰⁾이니 〈이글이글 끓는 정열의 화신〉¹⁰¹⁾이니 하면서 연산의 행위를 오히려 미화하고 있다. 작가의 역사해석에서 이것은 바로 호의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失國篇에 오면 연산에 대한 존칭이 거의 사라지고¹⁰²⁾ 지금

96) 朴鍾和, 前掲書, p. 198.

97) 朴鍾和, 前掲書, p. 198.

98) 朴鍾和, 前掲書, p. 245.

99) 朴鍾和, 前掲書, p. 259.

100) 朴鍾和, 前掲書, p. 245.

101) 朴鍾和, 前掲書, p. 317.

102) 이 작품의 失國篇 앞부분에서는 작가가 연산의 행위에 대한 서술어 문제가 「~하셨다」로 나타내었다. 그러다가 失國篇에서는 「~하였다」로 바뀌었다.

까지 동정심 내지 호의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던 작가의 시선이 그 반대로 변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前略(필자주)… 구중 궁궐 깊은 속에는 주지죽림에 음탕한 춤과 호탕한 노랫소리가 밤과 낮으로 끊치고 떠날 사이 없으나, 백걸을 궐문 밖 나서면 헐려지는 초가집! 집 잃은 백성! 백성들은 허리굽은 늙은 부모와 나이 어린 자식들을 조랑조랑 손목잡고 거집할 곳을 몰라 거리로 호곡하고 헤매인다. 한 사람의 호화에만 사람은 울고 떠난다. 한 사람의 장난에 만 사람은 굶주린다.¹⁰³⁾

이것은 당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다. 작가는 당대의 사회를 연산의 황음무도와 부당한 권력횡포로 말미암아 저항도 개혁의 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백성들의 수난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상황의 심층을 꿰뚫고 비판하는 작가의 새로운 역사적 안목을 보여 줌으로써 앞의 연산행위를 미화하는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특히 연산이 왕위를 빼앗기기 1년 전 1505년 乙丑年에는 <풍류제왕>¹⁰⁴⁾ <궁사극치한 토목>¹⁰⁵⁾을 일으키는 임금으로서 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연산의 행위에 대하여 작가는 <연산의 방탕한 마음은 더욱 그칠 줄을 모르고 너푼거렸다>¹⁰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폭군>¹⁰⁷⁾으로 매도하면서 연산의 행적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다같은 역사적 사실인데도 이와 같이 작가의 시선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박종화가 이 작품에서 연산의 행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역사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적 진실성이며, 이 진실성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개성화하는 동시에 역사적 존재로서의 필연성을 형상화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103) 朴鍾和, 前掲書, p. 388.

104) 朴鍾和, 前掲書, p. 431.

105) 朴鍾和, 前掲書, p. 433.

106) 朴鍾和, 前掲書, p. 434.

107) 朴鍾和, 前掲書, p. 436.

역사소설에 있어서 인물의 선택은 작가의 역사파악의 방법과 깊게 관련되므로 작가의 역사해석이 올바르지 못하면 진실한 인물을 창조하려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¹⁰⁸⁾ 박종화는 연산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지극히 감상적이고 소박한 역사해석으로 인하여 인물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인간성을 하나의 가치관에 고착시키지 않고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錦衫의 피」의 구조상의 특징이다. 다만 이 소설 역시 〈흔히 역사소설이 저자되기 쉬운 선과 악의 대조법적인 구성〉¹⁰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한계이기도 하다.

반면에 박태원의 「洪吉童傳」에서, 연산은 주인공이 아닌 배경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연산을 내면적 스토리를 나타내는 인물로 설정하고 비정(批政)만을 문제삼고 있다. 앞의 박종화의 작품은 연산의 출생에서 왕위에서 물러나기까지의 一代記가 궁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王朝史인 데 반하여, 이 작품은 작가가 反연산의 입장에서 갑자사화 이후부터 연산이 왕위를 빼앗기기까지의 사회사적 고찰과 주체적 의식의 전개에 따른 民衆史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연산은 그것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의 「洪吉童傳」에서 연산은 한 마디로 〈황음무도(荒淫無道)한〉¹¹⁰⁾ 임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작가는 그의 행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연산의 교사(驕奢)와 황음(荒淫)은 날이 갈수록 더하였다. 그는 각도 대소읍(各道大小邑)에 기악(妓樂)을 설치하고 우선 창기(娼妓) 삼백명을 뽑아 서울로 데려오게 하였다. 무엇이고 새로 이름을 지어 부르기를 좋아하는 연산이다. 악공(樂工)을 「광희(廣熙)」라 하고 창기를 「운평(運平)」이라 하였다.¹¹¹⁾

108) 洪禎云, 前揭書, p. 38.

109) 임헌영, 前揭書, p. 331.

110) 朴泰遠, 前揭書, p. 15.

111) 朴泰遠, 前揭書, p. 21.

- 자고로 동서(東西)를 물론하고 못된 얼굴이란 으레, 주색(酒色)에 빠지고
무용한 토목(土木)을 일으키고 또 사냥질 하기를 좋아한다.¹¹²⁾
○밤을 낮으로, 궁중(宮中)에서의 연락(宴樂)은 풀일줄을 몰랐다.¹¹³⁾

여기서 작가는 우리 歷史에 숨겨진 갑자사화 후의 연산의 비정을 꼬집어 내어 독자와 함께 비판하고자 한다. 박태원은 연산을 묘사하는 데 인간 자체로서의 연산이 아닌 임금으로서의 연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의 소설화과정에서 실존인물인 연산을 두고 창작한 점에서는 박종화의 「錦衫의 피」와 다를 바 없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연산을 동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단도직입적으로 〈황음무도한〉 임금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錦衫의 피」와는 달리 왜 연산이 이러한 비정(秕政)을 계속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폭군 연산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내면적 스토리를 나타내는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비정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작가가 연산군에 「황음무도한 임금」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소설화했기 때문에 다분히 관념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나 독자들의 연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악인)이다. 부정적인 사실을 부정적으로 소설화했다는 데에 이 소설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작가는 연산을 시종 일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가치관으로 평가했다.

6. 결 론

지금까지 筆者는 박태원의 「洪吉童傳」을 통하여 그의 歷史小說觀, 韓民黨의 性格과 그 背景, 作品의 전개 양상, 他作品과의 인물 대비 등을 살펴 보았다.

112) 朴泰遠, 前掲書, p. 22.

113) 朴泰遠, 前掲書, p. 22.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박태원의 歷史小說觀은 객관적 태도로써 객관을 보는 리얼리즘 확대 내지 심화,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민중의식의 고취, 해방직후 낙관적 전망의 우의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활빈당은 朝鮮朝 前期 群盜 내지 義賊으로서 한동안 유행하였던 민중단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활빈당의 基本性格은 첫째 민중저항이다. 탐관오리들이 불쌍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활빈당이 도로 빼앗아 그것을 본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을 표시하는 것이다. 둘째 활빈당의 基本性格은 救恤이다. 그래서 활빈당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그런데 허균의 「洪吉童傳」에서 활빈당은 그것의 본뜻이 다소 弱化되었는데, 박태원의 作品에서 그것이 오히려 救恤에서 救國運動으로 발전함으로써 민중저항의 擴大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활빈당이 생기게 된 背景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임금의 문란한 政事와 荒淫無道 행위 등으로 인한 백성들의 도탄이다.

이 作品의 전개양상은 二重構造로 나타난다. 하나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서 활빈당과 탐관오리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문제화로서 활빈당과 燕山의 대립 내지 燕山과 反燕山의 대립이다. 이 作品에서는 이 두 요소가 並存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타 작품과의 人物 對比를 한 결과, 허균의 「洪吉童傳」에 나오는 홍길동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데 집착하는 인물로, 박태원의 「洪吉童傳」에서 그는 개인적 삶→사회적 삶→민족적인 삶으로 변신을 계속하였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 허균의 작품에서 홍길동은 인위적인 영웅으로, 박태원의 작품에서 그는 자연적인 영웅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박종화의 「錦衫의 피」에서 燕山은 한 시절의 풍류제왕, 이글이글 끓는 정열의 화신 등으로 미화되어 나타나다가 점차 폭군으로 부각된다. 박

태원의 「洪吉童傳」에서 燕山은 시종여일 荒淫無道를 일삼는 임금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을 이렇게 고찰한 바, 박태원은 古小說 「洪吉童傳」의 전통적 요소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박종화의 「錦衫의 피」와는 다른 歷史意識을 가지고 「洪吉童傳」을 改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산군 시대의 실제인물인 홍길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최초의 작품이다.

(2) 조선조 전기의 義賊을 모티브로 한 유일한 작품이다.

(3) 조선시대 群盜 형태의 민중저항을 형상화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碧初 洪命憲가 「林巨正」을 통하여 조선시대 群盜 형태의 민중저항을 주제로 한 歷史小說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면, 황석영은 「張吉山」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박태원의 「洪吉童傳」은 그것의 교량 역할을 한 것이다.

(4) 박태원의 생애를 참고해 볼 때 평소 그의 역사지향적인 작가의식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유일한 작품이다 (다른 장편소설도 4편이 있지만 모두 미완성이다.).

參 考 文 獻

- 강영주, 「박종화의 역사소설」, 論文集 18집, 상명여대, 86. 8.
 _____, 「장길산과 역사적 진실성의 추구」, 創作과 批評 70, 1990. 겨울호.
 權寧民, 韓國近代文人大事典, 亞細亞文化社, 1990.
 金起東, 「홍길동은 實存人物」, 小說文學 70, 1981. 9.
 金東旭 解説, 許筠研究, 새문사, 1989.
 金성수, 「仇甫 朴泰遠論」, 首善論集 12. 成均館大 大學院, 1987.
 金允植, 「歷史文學의 方法論의 展開」, 現代文學 100, 1963. 4.
 _____, 「우리 역사소설의 4가지 유형」, 小說文學, 1986. 6.
 金章東, 朝鮮朝 歷史 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6.

- 나준호, 박종화의 역사소설연구, 전남대 대학원(석사), 1987.
- 대한민국 문교부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9.
- 민현기, 한국 근대소설과 민족현실, 文學과 知性社, 1989.
- _____, 「역사소설, 그 虛構와 眞實」, 世界와 나 15호, 1991. 1.
- 朴南澈, 「朴泰遠 小說研究」, 한양어문연구 4, 한양대어문연구회, 1986.
- 朴鍾和, 「歷史小說과 考證」, 文章, 1940. 10.
- _____, 금삼의 피, 汎友社, 1984.
- 朴泰遠, 洪吉童傳, 金融組合聯合會, 1947.
- 白樂晴, 「歷史小說과 歷史意識」, 창작과 비평 5호, 1967, 봄호.
- 白 鐵, 「歷史事實과 現代作品」, 自由文學, 1963. 5.
- 徐鍾文, 「홍길동전에 나타난 現實認識문제」, 金東旭 해설, 許筠研究, 새문社, 1989.
- 宋百憲, 韓國近代歷史 小說研究, 三知院, 1985.
- 安懷南, 「作家 朴泰遠論」, 文章 1. 1939. 2.
- 尹炳魯, 現代作家論, 二友出版社, 1978.
- 李文奎, 「홍길동의 性格」, 張德順 外.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9.
- 李御寧 編著, 韓國文學研究事典, 宇石出版社, 1990.
- 李在銑, 「갑오농민전쟁論」, 文學思想 200, 1989. 6.
- 李炫熙, 韓國史 總論, 日新社, 1980.
- _____, 韓國의 歷史 (17), 學園出版公社, 1989.
- 임현영, 「격변기의 진상추구」, 유주현, 파천무, 동광출판사, 1990.
- 林焚澤·姜玲珠, 碧初 洪命憲 「林巨正」의 재조명, 사계절, 1988.
- 장양수, 「황석영의 張吉山論」, 동서문학 197, 1990. 12.
- 鄭鈺東, 洪吉童傳 研究, 民族文化社, 1983.
- 鄭賢淑, 朴泰遠 小說研究, 이화여대 대학원(박사), 1990.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8.
- _____, 「영웅의 일생과 홍길동전」, 金東旭 解説, 許筠研究, 새문社, 1989.
- 趙東吉, 「現實의 題材의 小說化와 그 限界－『愚民』의 경우」, 論文集 25, 공주사대, 1987.
- 趙鎮基, 韓國現代小說研究, 學文社, 1984.

韓祐勛,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9.

玄鎮健, 「歷史小說問題」, 文章, 1939. 12.

洪性岩, 「歷史小說의 史的 考察」, 한양어문연구 4, 한양대어문연구회, 1986.

洪禎云, 韓國 近代歷史小說研究 -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東國大 大學
院(박사), 1987.

황패강·정진형, 홍길동전, 시인사, 1984.

E. J. 홉스보움, 黃義坊譯, 義賊의 社會史, 한길사, 1978.